

고용창출에 있어서의 한국중소기업의 역할

- 1990-2006년 기간을 중심으로 -

정 용 균* · 방 하 남** · 김 정 원***

< 목 차 >

- | | |
|-------------------------|---------------------|
| I. 서 론 | 2. 순고용창출과 중소기업 |
| II. 연구대상기업과 규모별 고용분포 추세 | IV. 노동의 품질과 직업의 안정성 |
| 1. 연구대상기업 | V. 결론 및 시사점 |
| 2. 규모별 고용분포 추세 | 참고문헌 |
| III. 고용창출과 중소기업의 역할 | Abstract |
| 1. 고용창출과 중소기업 | |

국문초록

본 논문은 90년대부터 2천년대 중반까지 기간 동안 고용창출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연구의 초점은 아시아금융위기가 한국에 밀려오기 전단계인 1990년대 전반기와 아시아금융위기의 충격을 어느 정도 내부화한 2000년대 이후, 규모별 고용창출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으로는 첫째, 규모별 고용분포, 신규고용창출, 기업들의 인원부족에 대한 통계자료 등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여 규모별 고용창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1990년부터 2006년 기간 동안 한국경제에서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역할은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소기업 중에서 특히 9인 이하 중업원을 고용하는 마이크로기업부문에 고용창출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셋째, 순고용창출에 있어서는 대기업도 순고용창출 기여도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순고용창출이 더 크게 나타났다. 넷째,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의 안정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중소기업, 고용창출, 초소기업

*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ykchung@kangwon.ac.kr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phang@kli.re.kr

***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교신저자, jwkim25@kangwon.ac.kr

I. 서 론

최근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 금번 금융위기는 90년대 후반 한국이 경험한 아시아금융위기와는 그 규모나 구조면에서 차이가 있다. 아시아금융위기는 주로 아시아지역 내에서 경제성장, 환율, 고용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변화를 가져왔지만, 금번 금융위기는 아시아지역 뿐 만 아니라, 미주권, 유럽권을 아우르는 전 세계적 규모를 가졌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 투자, 고용 등 주요 실물 거시경제변수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는 조하현과 이승국(2003)이 주장 하듯이 은행의 안정성을 약화시켰으며, 조운제(1999)의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아시아금융위기는 은행의 안전성을 더욱 악화시켰다. 백웅기와 정지만(1998)의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금융자유화가 이루어져 있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은행위기가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금융부문에서의 위기는 단순히 금융부문의 구조조정만으로 종료되기 보다는 실물부문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주가, 환율 등 금융부문 경제변수 뿐 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투자, 고용 등 실물변수까지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고용은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아시아금융위기를 경험한 한국의 사례는 앞으로의 고용예측과 국가 고용정책 수립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990년대 중반까지 3퍼센트 대의 낮은 실업률을 보였으나, 아시아금융위기가 닥친 1997년을 기점으로 고실업률 시대로 진입하였다. 고용에 있어서도 1997년을 기점으로 기업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였다. 많은 기업이 인터넷의 도움으로 사원 채용방식을 정시채용에서 수시채용으로 바꾸었으며, 종신고용제를 포기하고 능력위주로 채용관행을 바꾸고 있다. 또한 급여제도도 연봉제로 바꾸는 등 우리 사회는 고용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 와중에 대학졸업자들을 위시한 청년실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딜레마는 노동시장 공급자인 청년층은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반면, 정작 노동시장 수요자인 중소기업은 인력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청(2007)에 의하면, 대졸 취업희망자를 비롯한 청년층은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노동력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연구들은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하여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우선 1990년대 이후, 중소기업관련 문헌들은 고용창출에 있어 중소기업(SMEs)이 갖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동 분야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는 Birch(1987)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신규 고용창출의 대부분은 중소기업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Baldwin과 Picot(1985)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의한 신규고용의 창출이 대기업에 의한 고용창출보다 더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경우, Wagner(1995)의 연구에 의하면, 소기업이 신규고용의 창출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1986년부터 1990년 기간 동안 영국을 분석한 연구에서 Hart와 Hanvey(1995)는 새로운 소기업이 고용창출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 대한 연구에서 중소기업은 고용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반면에, Davis, Haltwinger and Schuh(1993, 1996) 등은 일련의 연구에서, 고용창출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여타 학자들의 주장처럼 크지 않다는 논점을 제기하여 왔다. 그들의 논거는 첫

반면에, Davis, Haltwinger and Schuh(1993, 1996) 등은 일련의 연구에서, 고용창출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여타 학자들의 주장처럼 크지 않다는 논점을 제기하여 왔다. 그들의 논거는 첫

째, 미국경제에 대한 분석에서 경기불황시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의 효과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는 편기현상을 보이고, 둘째,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이나 큰 규모의 공장이 신규 고용창출에 대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셋째, 총고용창출율(gross job creation rate)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고용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순고용창출율(net job creation rate)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규모간 명백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Henrekson과 Johansson(1999)에 의하면 스웨덴의 경우에는 10-99인 규모의 중소기업들의 숫자는 많지 않으며 심지어는 대기업으로 성장할 의향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Robson과 Gallanger(1994), Robson(1996) 그리고 Wagner(1997)는 그 이전까지의 고용창출에 대한 연구들을 비판하면서, 과거의 고용창출연구들이 주로 일시적인 고용창출효과에만 집중할 뿐, 고용의 질, 즉 고용의 안정성측면은 소홀하게 해왔다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 Robson과 Gallanger(1994)는 영국에 대한 연구에서 영국 기업들의 60% 정도는 2년 이상 고용수준을 유지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까지의 연구가 주로 안정적인 고용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일시적인 기업의 행태에 집중할 뿐, 고용창출에 있어서 안정적인 기업의 역할을 등한시 해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산업국에서의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역할에 대해 집중하여 왔으며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고용창출과정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을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기간을 1990년부터 2005년으로 선택한 것은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고용사정은 종신고용제와 장기고용제 등 매우 안정적이면서도 3% 수준의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다가 1997년에 촉발된 아시아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모든 환경이 변화한데 바탕을 둔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아시아금융위기가 한국에 밀려오기 이전단계인 1990년대 전반기와 아시아 금융위기의 충격을 어느 정도 내부화한 2000년대 이후, 기업규모별 고용창출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초점이 놓여 있다.

II. 연구대상기업과 규모별 고용분포 추세

1. 연구대상기업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들은 고용창출과 기업규모간의 관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고용의 규모별 분포에 대한 자료는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 패널자료에 의하여 수집되고 발표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 패널자료가 유효하나, 패널자료를 수집한지 오래지 않아 시계열적 관점에서 고용문제를 연구하기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부가 발간하는 매월 노동통계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노동부는 총 기업들 중 3,90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최근 기업규모별 고용추세를 추적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기업 규모에 있어서도 한국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와 유럽 및 미국의 중소기업의 정의가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기업의 종업원 수에 기초하여 기업을 소기업, 중기업, 대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성소미(1995)에 의하면, 소기업은 종업원 수가 21명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되며, 중기업은 종업원 수가 21명에서 300명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노동부 월별노동통계보고서에서는 종업원 규모를 10-29명, 3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의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분류해왔으며 최근에는 9명 이하의 카테고리라와 1000명 이상의 기업도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연구의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5-10명을 고용하는 기업을 초소기업(micro firm)으로 정의하고, 10-29명 이하를 고용하는 기업을 소기업(small business)으로 분류하고, 종업원 수 30명에서 299명까지 고용하는 기업을 중기업(medium sized business)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을 대기업(large business)으로 정의한다.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은 다시 300-499명을 고용하는 중형기업과 500-999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형기업,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초대형 기업으로 세분화하였다.

2. 규모별 고용분포 추세

<표 1>에서 보듯이 규모별 사업체수는 중소기업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사업체의

<표 1> 규모별 사업체수 분포
(구성비)

	1998년	2005년
1-4인	68.81	63.92
5-9인	17.65	21.15
10-29인	9.66	11.02
30-299인	3.72	3.78
300-499인	0.08	0.07
500-999인	0.05	0.04
1000인 이상	0.03	0.02

참조: 노동부, 노동통계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임.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2005년 현재 종업원 9인 이하를 채용하는 초소기업(micro firm)형태의 사업체수가 전체 조사대상 사업체의 85%를 점유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 규모의 대기업은 불과 1.3%에 불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용창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체수 관점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지대함을 알 수 있다. 보다 세분화한 규모별 통계자료 수집이 가능하기 시작한 1998년의 경우에도 이러한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 관점에서의 우위는 2005년과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Davis, Haltwinger and Schuh(1996)에 의하면, 기업들은 특히 경기침체에 들어서면 규모별 고용분포에 있어서 하향하는 경향을 나타내서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높은 것처럼 관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고용 유형을 개관하는 데 있어,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한국 경기변동의 정점인 1995년을 선택하여 살펴본 결과, Suh와 Chung(1998)에 의하면, 1995년의 센서스의 경우에 종업원 300명 이하를 고용하는 기업들이 총 고용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노동력의 23%는 비농업부문의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에 의하여 고용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300명 이하를 고용하는 기업이 총 노동력의 64.1퍼센트를 고용하고 있으며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은 총 노동력의 29.9퍼센트를 고용하고 있다. 한편 고용의 집중도는 서비스부문에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의 서비스산업이 소규모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분석은 중소기업들이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경로라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한국의 제조업과 비농업부문의 기업규모별 고용 유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표 2>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징으로는 1990년대의 경우,

<표 2> 제조업 규모별 고용분포, 1990-1995

	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소기업	중기업	중형기업	대기업	
	10-29	30-299	300-499	500+	
1990	7.7	42.5	7.6	42.2	100
1991	14.6	42.3	7.7	35.4	100
1992	14.8	42.4	7.7	35.1	100
1993	16.8	43.3	6.7	33.2	100
1994	17.9	44.2	6.6	31.3	100
1995	19.1	45.0	6.0	29.9	100

참조: 노동부, 노동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저자가 계산한 수치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기업의 고용집중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의 비중은 1990-1995년 기간 동안 명백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종업원 10-29명을 고용하는 소기업의 경우에는 1990년의 7.7퍼센트에서 1995년 19.1퍼센트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규모별 고용분포는 대기업의 고용에서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고용에서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사항으로는 중기업이 고용비중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농업부문에서는 중기업은 총 노동력 중 거의 절반을 고용하고 있다. 2000년대의 경우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6년 기간 동안 규모별 고용분포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현상은 9인 이하를 고용하는 마이크로 기업의 고용비중이 중기업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소기업이 고용창출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Tether와 Massini(1998)의 영국 혁신소기업에 대한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종업원 49인 이하 소기업의 고용창출 정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종업원 300인 이하를

<표 3> 상용직 근로자 규모별 고용현황, 2000-2005

	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초소기업	소기업	중기업	중형기업	대형기업	초대기업	
	(1-9)	(10-29)	(30-299)	(300-499)	500-999	1000+	
2000	29.43	21.24	32.72	4.25	4.31	8.05	100
2001	28.31	20.46	32.82	4.72	5.65	8.04	100
2002	30.08	21.38	32.32	4.22	4.46	7.54	100
2003	29.86	21.25	32.46	4.36	4.34	7.73	100
2004	28.96	21.18	32.69	4.19	4.84	8.14	100
2005	27.50	22.17	33.59	3.84	4.79	8.11	100

참조: 노동부, 노동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저자가 계산한 수치임.

고용하는 대기업들은 세 카테고리를 모두 합하여도 16% 근처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고용비중은 중소기업이 우세하다고 할 것이다.

Ⅲ. 고용창출과 중소기업의 역할

1. 고용창출과 중소기업

앞 절에서는 주로 기업 규모별 고용분포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관하여 연구한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고용의 규모별 분포는 고용창출에 있어 중소기업의 역할을 살펴보는 데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한다. 서방국가들은 패널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1990-1995년 기간과 2000-2005년 기간 동안 한국의 규모별 신규고용창출의 월평균자료를 사용하여 총고용창출을 분석하였다.

전체 구간을 이렇게 두 구간으로 분리한 또 다른 이유는 노동부 통계자료에서 1999년 이후부터는 자료를 보다 세분화하여 그 이전에 없었던 중

업원 5-9인 규모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규모별 신규고용창출분포가 기업규모별 고용성장의 유형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규채용종업원에 대한 분석은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증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의 근본적 차이점은 90년대에는 신규창출 기업 중, 종업원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의 비중이 22.9%인데 비하여, 2005년에는 13.6%로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990년대에 비하여 2000년대에는 신규직업 창출 중 중소기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1995년대에는 신규창출 기업의 중소기업의 비중이 77.1%인데 비하여, 2005년에는 신규창출기업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85.6%로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용창출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의를 요하는 점은 2000년대 들어서 10인 이하 종업원을 채용하는 초소기업의 직업창출이 15-19%에 이른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세분화하였다. 종업원 9인 미만을 고용하는 초소기업과 10인부터 29인 사이를 채용하는 소기업 그리고 30이상을 고용하는 중기업으로 분류하였다. <표 5>에서 보면, 중기업은 신규직업창출 중 가

<표 4> 신규채용종업원 규모별 변화, 1990-1995

	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소기업	중기업	중형기업	대기업	
	10-29	30-299	300-499	500+	
1990	13.6	55.9	6.4	24.1	100
1991	23.4	50.1	6.0	20.5	100
1992	22.5	51.3	6.1	20.1	100
1993	24.1	53.2	5.1	17.6	100
1994	25.8	52.3	5.3	16.6	100
1995	27.5	49.6	4.8	18.1	100

참조: 노동부, 노동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저자가 계산한 수치임.

<표 5> 신규채용종업원 규모별 변화, 2000-2006

	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초소기업	소기업	중기업	중형기업	대기업	
	(5-9)	(10-29)	(30-299)	(300-499)	500+	
2000	15.15	26.04	44.13	3.44	11.24	100
2001	19.08	29.22	41.77	2.72	7.20	100
2002	18.24	29.13	42.29	3.50	6.83	100
2003	17.02	29.58	39.88	4.82	8.70	100
2004	18.49	29.13	38.55	4.41	9.41	100
2005	16.81	28.51	40.27	4.29	10.11	100
2006	17.88	29.30	39.16	3.82	9.84	100

참조: 노동부, 노동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저자가 계산한 수치임.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0년 44.1%에서 2006년 그 비중이 39.1%로 5% 감소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초소기업의 비중은 2000년 15.1%에서 2006년 17.8%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기업의 비중도 2000년 26%에서 2006년 29.3%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에는 1990년 13.6%에서 2006년 29.3%로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직업창출의 주 엔진은 소기업과 초소기업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다른 각도에서 기업的高용창출 여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규모별 부족인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기업이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보

고하였으면 그만큼 인원을 보충할 유인이 있고, 고용이 창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규모별 부족인원 통계 역시 2000년대와 1990년대를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첫째, 고용관행이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한 1998년 이전과 이후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둘째, 1999년부터 노동부에서 종업원 5-9인을 고용하는 초소기업과 10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초대기업에 대한 통계자료가 활용가능 해졌기 때문이다.

기업규모별 노동력 부족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현저한 특징은 중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표 6> 규모별 부족인원 현황, 1994-1998

	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소기업	중기업	중형기업	대기업	
	10-29	30-299	300-499	500+	
1994	31.99	54.60	3.72	9.69	100
1995	33.49	54.08	3.98	8.52	100
1996	31.35	52.78	3.99	11.88	100
1997	34.42	53.60	4.01	7.97	100
1998	43.60	51.04	3.26	2.10	100

참조: 노동부, 노동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저자가 계산한 수치임.

<표 7> 규모별 부족인원 현황, 2000-2006

	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초소기업	소기업	중기업	중형기업	대기업	
	(5-9)	(10-29)	(30-299)	(300-499)	500이상	
2000	19.98	32.71	40.61	2.26	4.44	100
2001	23.59	33.06	38.80	1.93	2.62	100
2002	27.35	30.00	35.69	2.07	4.89	100
2003	24.20	29.38	40.81	2.96	2.65	100
2004	28.34	27.10	38.13	1.58	4.85	100
2005	34.73	27.66	31.86	2.08	3.67	100
2006	33.66	29.24	32.97	1.67	2.46	100

참조: 노동부, 노동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저자가 계산한 수치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치가 확보가능한 1994년에는 전체 부족인원 중 중기업 비중이 54%였다. 그러나 이 수치는 계속 감소하여 2005년에는 중기업 비중이 32%로 감소하였다. 이는 중기업의 고용창출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어 정책결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종업원 300-499인 규모의 대기업 역시 부족인원이 1990년대의 3-4% 수준에서 2005년에 이르러서는 1.5-2%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종업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의 경우는 아시아금융위기가 닥치기 이전 해인 1996년 까지는 부족인원의 구성비가 9-12%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2-4%대로 급감하였다. 따라서 고용창출은 종업원 10-29인을 고용하는 소기업이나 종업원 5-9인을 채용하는 초소기업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소기업의 경우는 90년대 후반부 부족인원이 지속적으로 비중이 커졌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3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한편 초소기업의 경우는 2000년대 들어 통계수치가 확보되고 있다. 통계수치에서 보듯이 초소기업의 인력부족분은 2000년의 20% 수준에서 2006년 33.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초소형 기업이

야 말로 우리나라 고용창출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부문이라 여겨진다.

2. 순고용창출과 중소기업

본 절에서는 Armington과 Odle(1982) 그리고 Birch(1987)의 연구를 기초로 신규채용종업원과 퇴직 및 해고종업원수간의 차이에 의하여 나타내는 순고용창출(net job creation)을 분석하기로 한다. <표 8>에 의하면, 1990-1995년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순고용창출과 대기업의 순고용창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1990-1995년 기간 동안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순고용창출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나누고 대기업을 중형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누었을 때,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소기업의 경우는 신규채용 종업원 수가 퇴직 및 해고 종업원 수를 능가하여서 순고용창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2000년대 전반기 6년 기간 동안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순고용창출을 계산한 결과, 모든 규모의 기업들에서 순고용창출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만한 점은

<표 8> 규모별 순고용창출, 1990-1995

	중소기업		대기업	
	소기업	중기업	중형기업	대기업
	10-29	30-299	300-499	500+
신규채용종업원	93,737	210,731	22,762	78,782
퇴직 및 해고종업원	92,543	220,896	24,834	84,690
순고용창출	+194	-10,165	-2,072	-8,908
합 계	-9,971		-10,980	

참조: 월별노동보고서에서 저자가 계산한 수치임.

<표 9> 규모별 순고용창출, 2000-2005

	중소기업			대기업	
	초소기업	소기업	중기업	중형기업	대기업
	5-9	10-29	30-299	300-499	500+
신규채용종업원	138,427	227,231	327,950	30,797	71,195
퇴직 및 해고종업원	134,049	224,760	316,225	30,519	62,641
순고용창출	+4,378	+2,471	+11,725	+278	+8,554
합 계	+ 18,574			+ 8,832	

참조: 월별노동보고서에서 저자가 계산한 수치임.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의 경우도 1990년대 전반기와는 달리 순고용창출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또한 중기업의 순고용창출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으며, 중소기업 전체와 대기업 전체를 비교하였을 때,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량이 대기업의 고용창출량 보다 2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자료가 비록 모집단 전체의 특징을 전부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으며 동일표본에서 추출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고용창출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여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노동의 품질과 직업의 안정성

Davis와 그의 동료들(1996)은 비록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하여 높다고 하더라도, 노동의 질이나 직업안정성 면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Wagner(1997)는 독일의 규모별 기업크기와 노동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Wagner(1997)에 의하며, 독일기업의 대부분은 소기업인데 비하여 직업의 안정성은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 이런 차원에서 본 절에서는 국내 노동의 품질을 규모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직업 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퇴직 및 해고자의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는 2000년의 11.4%를 제외하고는 2001년에서 2006년 기간 동안 12%대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중소기업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았을 때 퇴직 및 해고 비중은 대략 88%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

<표 10> 퇴직 및 해고자 규모별 변화, 2000-2006

	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초소기업	소기업	중기업	중형기업	대기업	
	(5-9)	(10-29)	(30-299)	(300-499)	500+	
2000	15.30	27.59	42.67	3.76	10.68	100
2001	17.51	28.67	42.17	3.69	7.96	100
2002	18.97	30.28	40.46	3.55	6.74	100
2003	17.04	29.17	41.46	4.60	7.72	100
2004	18.75	30.08	38.82	4.05	8.29	100
2005	17.14	29.68	41.44	4.06	7.68	100
2006	17.09	30.35	40.68	3.83	8.05	100

참조: 노동부, 노동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저자가 계산한 수치임.

<표 11> 규모별 평균근속현황, 2000-2006

	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초소기업	소기업	중기업	중기업	중형기업	대기업	
	5-9	10-29	30-99	100-299	300-499	500+	
2000	4.0	4.5	5.1	6.1	7.8	8.5	100
2001	3.2	4.7	5.4	6.6	7.5	8.8	100
2002	3.5	4.3	4.8	6.2	7.2	9.5	100
2003	3.9	4.5	5.3	6.4	7.8	9.3	100
2004	4.1	4.8	5.3	6.6	7.3	9.1	100
2005	3.9	4.6	5.4	6.6	7.7	8.8	100
2006	4.1	4.5	5.4	6.8	7.8	9.1	100

참조: 노동부, 노동통계정보시스템 자료

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은 신규직업 창출도 많을 뿐만 아니라 퇴직도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내부형태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소기업은 27%에서 30%대로 소폭 상승한 반면, 중기업의 경우에는 2000년의 42%에서 40%대로 소폭 하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요약하면, 직업의 안정성 면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다른 각도에서 직업의 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규모별 평균근속년수를 살펴보았다. <표 11>에서 보듯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평균근속년수가 작았고,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평균 근속년수가 증가하였다.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은 평균 근속년수가 8-9년으로 평균근속년수가 3-4년에 불과한 초소기업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았다.

또 다른 각도에서 직업의 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절에서는 상용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하여 기업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표 12> 일용직 근로자 규모별 고용현황, 2000-2005

	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초소기업	소기업	중기업	중형기업	대형기업	초대기업	
	(1-9)	(10-29)	(30-299)	(300-499)	500-999	1000+	
2000	41.24	26.14	25.30	2.35	2.33	2.64	100
2001	41.85	22.69	26.64	3.07	2.82	2.93	100
2002	40.93	22.49	26.50	4.11	2.67	3.30	100
2003	43.37	20.84	25.63	3.66	3.13	3.37	100
2004	43.05	18.72	27.00	3.65	3.62	3.96	100
2005	46.35	19.37	25.36	3.10	2.69	3.13	100

참조: 월별노동보고서에서 저자가 계산한 수치임.

초소기업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 비중은 <표 3>에서 보듯이 2000년대 전반기 동안 28-30%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표 12>에서 보듯이 초소기업의 경우, 여타 규모회사에 비하여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여타 규모회사들은 소기업이나 중기업의 경우에도 전체 일용직 근로자의 20% 내외를 고용하고 있는데 비하여 초소기업은 전체 일용직 근로자 중 절반에 육박하는 40%를 고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소기업의 고용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기간 동안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41%에서 46%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결국 초소기업의 경우에 직업의 안정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직업의 안정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기업의 경우 역시 일용직 비중이 20%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는 300-499명 규모기업이든 500-999명 규모기업이든 혹은 종업원 1000명 규모 기업이든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모두 3%에 머무르고 있어 대기업들의 직업안정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Wagner(1997)의 연구에서 독일의 경우에 직업의 안정성은 대기업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점과 일치

한다고 하겠다. 결국, 직업안정성의 관점에서는 대기업과 초소기업은 상당히 양극화현상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서의 역할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모별 고용분포, 신규고용창출, 기업들의 인원부족에 대한 통계자료 등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여 규모별 고용창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1990년부터 2005년 기간 동안 한국경제에서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는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둘째, 고용창출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기여도는 1990년대와 비교하여 볼 때, 2000년대 들어 더욱 커지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 중에서 특히 9인 이하 종업원을 고용하는 초소 혹은 마이크로기업부문에 고용창출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대기업의 고용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넷째, 순고용창출 관점에서는 대기업도 고용창출에 기

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절대량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량이 더 크게 나타났다. 다섯째, 대기업의 고용안정성은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중소기업의 고용의 안정성은 크게 떨어졌다. 즉,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의 안정성은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경제정책차원에서 두 가지 주요한 문제는 실업 문제와 인플레이션문제라 할 수 있다. 서구경제에서는 지금도 실업이 사회에 가져오는 비용과 인플레이션이 사회에 초래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교연구하고 있다. 실업은 실업자와 관련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지만, 인플레이션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이 보다 광범위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개인에게 미치는 파급 측면에 있어서 실업비용이 갖는 충격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실업을 줄이는데 우선적 투자와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본다. 한편 Wagner(1997)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소기업들은 경제의 동태적 측면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즉 규모는 작지만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은 기존시장에 진입해 들어가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혁신을 도입하며, 이를 통해 성공적인 신생 소기업들은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Wagner(1997)의 주장처럼, 이러한 선순환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적으로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현재 청년실업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는 벤처기업들에 대한 창업지원이나 규제완화 등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중소기업은 전체 일용직 근로자의 절반가량을 고용하고 있는 등 직업의 안정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의료보험, 임금격차 해소 등 중소기업의 직업안정성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차피 경제구조가 성숙되면 자동화설비의 영향, 장치산업의 소규모 인원 채용 등으로 고용창출률은 경제성장률을 따라가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어서 경제가 성숙될수록 실업문제는 더욱 심화될 여지가 크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이 보다 높은 현상이 서구경제에 대한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노동시장의 신규진입자들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은 대체적으로 회피하는 경향에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정책은 신규진입자들이 중소기업을 선택하고 쉽게 이직하지 않도록 임금과 후생복지 등 근무환경과 여건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고용보조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유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도 있다.

참 고 문 헌

- 노동부,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백용기, 정지만, 은행위기의 원인과 예측가능성: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제5권 제2호, 2월, 1998, pp.1-61.
조운제, 한국의 금융자유화와 금융위기, **조사연구 자료**, 99-3, 한국은행, 1999.
조하현 이승국, **신용리스크 측정과 관리**, 세경사, 2003.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인력 실태조사**, 2007.

한국은행, **최근 중소기업의 구조적 변화와 향후 정책과제**, 2005.

Acs, Z and D. Audretsch, *Innovation and Small Firms*, MIT Press, 1990.

Acs, Z, *Are Small Firms Important: Their Role and Impac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9.

Armington, C. and M. Odle, Small Business-How Many Jobs? *The Brookings Review*, Vol 1, 1982, pp. 14-17.

Autio, Erkko and Parhankangas, Employment Generation Potential of New, Technology-Based Firms During a Recessionary Period: The Case of Finland,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11, 1998, pp. 113-123.

Baldwin, John and Picott, Garnett, Employment Generation by Small Producers in the Canadian Manufacturing Sector,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7, 1995, pp. 317-331.

Bednarzik, R. W, The Role of Entrepreneurship in US and European Job Growth, *Monthly Labor Review*, Vol 123(7), 2000, pp. 3-16.

Binks and Jennings, Small Firms as a Source of Economic Rejuvenation in Curran, J. Stanworth and D. Watkins (eds), *The Survival of the Small Firm: The Economics of Survival and Entrepreneurship* UK Gower Publishing Company, 1986.

Birch, David, *Job Creation in America: How Our Smallest Companies Put the Most People to Work*, The Free Press, 1987.

Blanchflower and Burgess, Job Creation and Job Destruction in Britain, 1980-90, *Discussion Paper*, No 912,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Boersma, Lourens and Pieter Gautier, Job Creation

and Job Destruction by Small Firms: An Empirical Investigation for the Dutch Manufacturing Sector,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9, 1997, pp. 211-224.

David Birch, *Job Creation in America: How Our Smallest Companies Put the Most People to Work*, The Free Press, 1987.

Davidsson, Per, Lindmark and C. Olofsson, The Extent of Overestimation of Small Firm Job Creation-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Regression Bias,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11, 1998, pp. 87-100.

Davis Steven, J. Haltwinger, and Scott Schuh, Small Business and Job Creation: Dissecting the Myth and Reassessing the Facts,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8, 1996, pp. 297-315.

Dennis, William, *Small Business Prime: Charts and Graphs Illustrating the Importance and Role of American Small Business*, NFIB Foundation, 1993.

Doi Noriyuki and Marc Cowling, The Evolution of Firm Size and Employment Share Distribution in Japanese and UK Manufacturing: A Study of Small Business Presence,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10, 1998, pp. 283-292.

Hart, Mark and Hanvey Eric, Job Generation of New and Small Firms: Some Evidence from the Late 1980s,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7, 1995, pp. 97-109.

Lever, Marcel, Firm Size and Employment Determination in Dutch Manufacturing Industries,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8, 1996, pp. 389-396.

North D., D. Smallbone and R. Leigh, Employment and Labour Process Changes in Small and

- Medium Sized Manufacturing Enterprises during the 1980s, in J. Atkinson and D. Storey (eds) *Employment the Small Firm and the Labour Market* Routledge London.
- Picott Garnett and Richard Dupuy, Job Creation by Company Size Class: The Magnitude, Concentration and Persistence of Job Gains and Losses in Canada,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10, 1996, pp. 117-139.
- Robbins, D., L. Pantuosco, D. Parker and B. Fuller, An Empirical Assesment of the Contribution of Small Business Employment to US State Economic Performance,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15, 2000, pp. 293-302.
- Robson, Geoffrey, B., Unravelling the Facts about Job Generation,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8, 1996, pp. 409-417.
- Robson, Geoffrey, B. and Collin Gallanger, Change in the Size Distribution of UK Firms,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6, 1994, pp. 299-312.
- Snaffer, Sherrill, Establishment Size and Local Employment Growth,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26, 2006, pp. 439-454.
- Somi Seong,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and the Structural Adjustment of the Korean Economy, in Eul Yong Park(ed)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nd Economic Development*,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95.
- Stockman, Reinhard and Rene Leicht, The Pattern of Changes in the Long Term Development of Establishment Size,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6, 1996, pp. 451-463.
- Storey, David, J., Symposium on Harrison's Lean and Mean: A Job Generation Perspective,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7, 1995, pp. 337-340.
- Suh, Jai Myung and Yongkyun Chung, The Role of SMEs in Job Creation: Some Evidence from 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Proceedings of World Conference in Small Business*, Singapore, 1998.
- Tether, B. S. and S. Massini, Employment Creation in Small Technological and Design Innovators in the U.K. during the 1980s,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11, 1998, pp. 353-370.
- Wagner, Joachim, Firm Size and Job Creation in Germany,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7, 1995, pp. 469-474.
- Wagner, Joachim, Firm Size and Job Quality: A Survey of the Evidence from Germany,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9, 1997, pp. 411-425.

<Abstract>

The Role Of SME's For The Job Creation During The Period
From 1990 To 2006

Chung, Yong-Kyun · Phang, Ha-Nam · Kim, Jung-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ole of Korean SME's before and after Asian financial crisis during the period from 1990 to 2006. For this purpose, our study splits the total period into two sub periods before and after Asian financial crisis to ascertain any change in the role of SMEs in job creation in Korea. Our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the SME's play an important role in job creation in Korea across the total period, since this study shows the unchanging robust results of the dominant role of SME's for the job creation in Korea utilizing the various measures of employment data: size distribution of employment, new job creation, and firm level data of shortage of employment. Second, micro firms employing less than 9 workers play the dominant role among the size distribution of SME's. Third, the magnitudes of net job creation in SME's is larger than those of Big enterprises. Fourth, the job stability of SME's is inferior to those of Big enterprises.

Key Words : SME's, job creation, micro firm